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신령님은 거짓말쟁이

등장인물 소개

우식 13세
석주와 단짝친구. 모형비행기 수집이 취미고 장난 끼가 많으나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 석주와의 싸움에서 석주의 약점을 친구들 앞에서 폭로하는 비겁한 면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애쓰는 양심적인 모습도 보인다.
석주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석주를 도와주는 정이 많은 아이이다.

석주 13세
장난도 잘치고 명랑한 아이지만 석주의 가슴 깊은 곳에는 행방불명된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단짝친구인 우식에게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안 할 만큼 내성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아빠를 대신해 엄마를 보호해야한다는 의무감에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여린 아이. 석주엄마와 우식엄마의 싸움이 자식들 싸움으로 번져 우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만 우식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성격을 지녔다.

우식엄마 47세
산성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석주엄마와 형님동생 하는 사이로 꽤 가까이 지내고 살았으나 장사가 점점 안 되자 예민해진다. 매출장부가 판매대금과 맞아떨어지지 않자 석주엄마를 의심하고....
성격이 급해 속단을 잘하고 쌀쌀맞고 모진구석이 있는 인물이며, 남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는 것을 잘한다.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불리한 것은 능청 떨면서

숨기는 정직하지 못한 인물이다.

석주엄마 45세
우식이네 식당일을 도와주면서 남편 없이 혼자 석주를 키우고 있다.
순박하고 정감 가는 인물로 식당이 잘 안되자 일자리를 잃을까봐 우식엄마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우식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었어도 참을성 있게 상황을 잘 넘긴다. 남편의 부재로 쓸쓸함을 느끼지만 석주 앞에서 내색 하지 않는 강한 엄마, 그러나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을 몰래 지켜보고 같이 눈물 흘리는 여린 엄마이기도 하다.

이장 50세
우식의 아버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로 석주가 아버지의 부재로 소외감 느낄까봐 배려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마을 일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마을 사람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식엄마 47세
산성마을에서 살다가 수암골로 이사를 갔다.
우식엄마와 친분이 두텁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산성마을에 제(祭) 구경 왔다가
우식엄마와 석주엄마 사이가 틀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 우식엄마가 석주엄마를 험담해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하며, 우식엄마가 석주엄마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다.

장승할배(덕배) 83세
대대로 산성마을에서 살아온 산성마을 토박이로 장승 만드는 일을 한다.
산성제(山城祭)를 주관하는 제관(祭冠)으로 격식과 예를 중요시하고, 권위의식이 강한 인물로 강직하고 엄한 성격 탓에 아이들은 장승할배를 무서워한다. 마을 일에 적극적이고 마을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시놉시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상당산성.
상당산성은 비단 아군(我軍)의 목숨 뿐 만 아니라 산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그 속에 깃든 정신도 함께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의 상당산성은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알려지기보다 등반코스로 더 유명해지고 그 가치도 점점 쇠락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산성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산성에 깃든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작품에 나오는 산성제와 산성밟기를 통해 우리의 전통의식과 산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

산성마을에서 둘도 없는 단짝친구인 석주와 우식은 그 날도 어김없이 장난을 치며 하교를 하고 있다. 우식이네 식당 앞에서 멈춰선 둘은 식당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우식엄마는 매출장부와 판매대금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석주엄마를 의심하게 되자 이것이 발단이 되어 아이들 싸움으로 이어진다.

두 차례 씩이나 우식과 싸우고 난 석주는 마을 저수지에 앉아 생각한다.
(아빠.... 아빠가 너무 그리워....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장의 말대로 소지를 소원항아리에 넣기 위해 당집에 간 석주는 우식을 만나게 되고, 우식은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은 탓에 석주의 소지를 찾아 찢어버리고 자신의 소원을 적어 항아리에 넣는다. 우식은 과연 어떤 소원을 적은 것일까?
그러는 동안 마을은 축제분위기로 들떠있고, 제(祭)구경 나온 동식엄마를 통해 석주모자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다. 우식은 석주를 해코지 했던 자신의 소지를 찾기 위해 장승할배가 소지 태우는 것을 막아서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우식의 마음 속에는 석주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석주는 산성제를 치르고 산성밟기를 하다가 산성 중턱에서 그만 다리를 다치게 된다.
우식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성 정상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석주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에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석주를 부축해 정상까지 데리고 올라간다. 그토록 간절했던 석주의 소원은 무엇일까?
산성 정상에서 둘은 화해를 하고, 석주의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하면서 산성밟기는 마무리 된다.

신령님은 거짓말쟁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성마을, 마을 가운데에 있는 저수지를 따라 40여 채의 가구들이 들어서 있다. 저수지를 따라 벚꽃나무가 즐비하게 서있고 봄바람에 꽃잎은 흩어지며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간다. 저수지 한 켠에 자리 잡은 낚시꾼들은 낚싯대를 들었다놨다하며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S#1. 하굣길

저수지 둘레 길을 따라 나란히 걸어오는 아이 둘
작고 야무지게 생긴 석주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마다 고기가 걸려들었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낚시꾼들을 바라보며 걸어오고,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우식은 막대사탕을 빨며 석주가방에 쪽지를 붙여놓고 혼자 낄낄거린다.

우식　석주야, 니 가방 내가 살게. 자, 500원 (능청떨며 500원을 석주에게 펴 보인다)
석주　뭔 소리야? 내가 가방을 왜 팔아?
우식　뭐긴 뭐야. 니가 가방에 가격표 붙여 놨잖아 (킥킥대며 도망갈 준비를 한다)

석주는 등에 맨 가방을 풀러 쪽지를 떼어 읽는다.

쪽지 삽입.
노란종이에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 <가방 500원에 팝니다>

우식　(도망가며) 약오르지롱~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석주　으이구 이게~ 언제 이거 붙여놨어? 너~ 거기 안서!!
우식　(달려가다 뒤돌아보며) 내가 미쳤냐? 니가 서라고 해서 내가 서게. 넌 죽어도 나 못 잡을 걸?
석주　(뒤쫓으며) 야~ 우식아!! 그게 아니고.... 가방 팔 테니 사가라고~
　　공부하기 싫어 죽을 뻔 했는데 고마워 우식아.
　　(가방을 벗어들고는) 야! 심우식! 거기 서야 거래를 할 거 아니야~~

석주는 헉헉대며 우식을 쫓아가고 있고, 우식은 도망가다가 산성입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멈춘다. □□대박식당□□이란 간판이 보이고, 식당 앞에서 우식이 뭔가를 엿듣고 있다. 석주도 식

당 앞에서 멈춰서 식당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S#2. 식당 안(홀) - 낮

식당에 손님은 하나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

석주엄마는 파리채를 들고 다니며 테이블에 앉은 파리를 □□탁, 탁□□후려치고, 우식엄마는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리는 듯 석주엄마를 째려본 후 다시 계산을 하고 있다.

우식엄마　(짜증 섞인 말투로) 아휴~ 정말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얼마 전부터 계속 몇 천 원씩 안 맞더니 오늘은 몇 만원 씩이나 안 맞잖아.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정말 신경질 나 죽겠어~

(E) 계산기 소리 - 톡! 톡! 톡톡톡! 톡!

우식엄마는 신경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석주엄마는 우식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바닥 물걸레질을 하다 뭔가 생각난 듯,

석주엄마　아 참, 형님 이거 받아유. (앞치마에서 돈을 꺼내며) 내가 어제 형님이 바쁜 것 같아서 대신 계산했는데 깜박하고 안 드렸네유.

우식엄마　(돈을 받아 세어보고는)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

우식엄마는 의심의 눈초리로 석주엄마의 앞치마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 석주엄마는 우식엄마의 행동이 불편한 듯 바닥 걸레질에 열중한다.

우식엄마　(계산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몰래 쓱싹하는 거 아니야?)

석주엄마는 카운터 위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치우며 손걸레질 하고 있다.

우식엄마　앞으로 카운터 청소는 내가 할 테니 자네는 다른 데 청소나 신경써주게

석주엄마　아휴~ 참~ 형님은.... 내가 뭐 돈 훔쳐 갈까봐 그러셔유?

우식엄마　누가 그렇대? 자네가 거기 서 있는 게 신경쓰인다고!!
동생 일하고 나서부터 손님도 안 오고 장부도 안 맞는단 말이야

석주엄마　(억울하다는 듯) 형님~ 내가 손님 오지 말라고 했슈? 아님, 장사한 돈을 훔쳐갔슈?

우식엄마　청소한답시고 카운터 앞을 왔다갔다한 뽐새가 영~ 의심스러워서....

석주엄마　뭐여~ 의심? 형님 정말 말 다했슈?
석주엄마는 걸레질하다 걸레를 카운터에 던진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석주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뿜는다.

우식엄마　돈 안가져 갔으면 그만이지 애꿎은 걸레는 왜 집어던져?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화내는 거 보니 내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는가보지? 아니, 그럼 동생이 안 그랬다는 증거를 대보던가....

우식엄마는 말하다 잠시 멈춘다.
우식엄마는 석주엄마의 대꾸가 없자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우식엄마　아무리 바빠도 계산은 내가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나대신 계산을 하지 않나, 손님 없을 때는 청소를 핑계 삼아 카운터 주변을 얼쩡대지 않나.... 이러니 내가 의심이 안 들겠어? 이거 틀림없이 바쁠 때 계산한답시고 슬쩍 한 거야. 그러니까 장부가 안 맞는 거라고!

석주엄마는 찬물을 들이키며 화를 억지로 누르고 있다.
빼꼼히 열어놓은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장부위에 펼쳐 놓았던 영수증들이 바람에 날린다.
영수증은 식당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식엄마는 영수증을 줍기 위해 몸을 일으킨다.
(E) '쿵'하는 소리와 함께 스텐, 플라스틱 그릇들이 동시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우식엄마　아이고~ 엉덩이야~ 넘어지면서 허리도 다쳤나 부네~ 아이고 아부지~ 아이고~~ 나 죽내~ 나 죽어 (허리잡고 뒹군다)

'쿵'하는 소리와 그릇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식당 밖에서 엿듣고 있던 석주와 우식이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석주엄마는 갑자기 등장한 아이들 때문에 놀라 멍하니 서있다.
저녁장사 위해 준비해 둔 찬그릇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반찬들은 식당바닥에 너부러져 있다.
바닥에서 뒹구는 엄마와 엉망이 된 식당을 본 우식은 흥분하여 다짜고짜 석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우　식　　석주 이 자식,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저렇게 만들었지?
말로하면 되지 사람을 저렇게 때려눕히면 되겠냐고. 너 이 자식 오늘 죽었어.
석　주　　(우식의 얼굴을 때리면서) 너 이 자식, 니네 엄마는 뭐 잘한 거 있어?
아무 짓도 안한 우리 엄마를 왜 도둑으로 모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증거있어?
있냐고?
우　식　　이게 정말~ 증거? 카운터에서 돈이 없어 졌다 잖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석주와 우식은 서로 뒹굴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고, 석주엄마는 놀라 안절부절 못하며 둘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E)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 스르륵~ 쾅!!

이　장　　너희들 누가 싸움질하래? 그만두지 못 하겠니!!

갑작스런 말소리에 모두 놀라 이장을 바라보고 그제야 우식과 석주는 엉겨 붙은 몸을 푼다.
이장은 엉망이 된 식당을 둘러보고 인상을 쓰고, 우식엄마와 석주엄마는 민망한 표정을 짓는다.

이　장　　우식이 너 석주한테 사과해라
우　식　　(흥분하여 따지듯) 아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석주네 엄마가 우리
가게 돈을 몰래 훔쳐가고 우리 엄마를 바닥에 넘어뜨렸단 말이예요
이　장　　우식이 너 정말 아빠 말 안 들을래? 근거도 없이 그런 말 하는 게 잘못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주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우식엄마　　얘 말이 맞는데 당신은 무조건 우식이한테만 사과하라고 하세요?
이　장　　당신 정말 이럴 거요? 이 모든 사단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당신 책임이 젤
커요. 아이들 있는데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　식　　(눈물을 글썽이며) 나 석주한테 사과 못해요. 아빠는 석주 편만 들고...
석주가 그렇게 좋으면 그럼 석주네 아빠하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

이장은 우식모자가 벌인 일들로 인해 석주엄마와 석주에게 미안해하지만 우식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서있다.

집으로 가기위해 식당 문을 나서는 석주모자, 그들의 등 뒤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난다.

S#3.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 - 저녁

확성기를 통해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는 이장의 안내방송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마을회관 느티나무 아래로 몰려든다.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으며 웅성웅성 대는 사이 주인을 따라 나온 동네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경중경중 뛰어오르기도 한다. 무리지어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장승할배를 보고 놀라 소리친다.

아 이 장승할배다. 장승할배가 오신다~

뛰놀고 있던 아이들은 일제히 행동을 멈추고 장승할배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준다.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에 한복차림, 굳게 다문 입술. 꼿꼿하게 허리를 곧추세우고 걷는 모습이 80대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장승할배 우식이 너 이놈, 할애비한테 인사도 안하고 뭐하고 서 있는 게야

멍하게 있던 우식은 깜짝 놀라 고개만 까닥하고 재빨리 무리 속으로 숨어버린다.

장승할배 쯧 쯧, 저 버르장머리하고는....
이 장 이 마을 최고 어르신인 덕배 어르신도 오셨으니, 마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안건은 내일 있을 산성제에 관한 것입니다. 당집 앞에서 산성신께 제를 올리고 자정 쯤 해서 산성을 오를 예정입니다. (말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입만 움직이는 모습으로 처리)
장승할배 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부터 산성을 한 바퀴 돌면 건강해지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소원성취 한다는 전설이 있으니, 소원성취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지를 태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산성을 돌고 집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석 주 (쳇, 소원을 적어 태워 올린다고 소원이 이뤄지나? 그럼 이 세상에 안 이루어지는 소원은 없겠네. 다 거짓말이야)
이 장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祭)가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종이에 소원을 적어 당집 안에 둔 소원항아리에 소원을 넣어주시면 제를

지내고 한꺼번에 태워 올리겠습니다. 소지(신에게 소원 할 때 태워 올리는 종이)는 한 사람 앞에 한 장씩만 드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소원을 적어주세요.

이장이 말하는 동안 우식엄마는 마을사람들에게 소지를 나눠주고 있고, 소지를 받은 마을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석주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E) 자전거 벨소리 - 따르릉~ 따르릉~
이장은 석주 옆에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석주 손에 소지 한 장을 쥐어준다.

이 장 석주야, 네 소원은 특별히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시 페달을 밟아 저만치 사라진 이장.
석주는 이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지를 반으로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S#4. 6학년 3반 교실
여자 아이들은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고, 교실 한 쪽 벽면에서는 말타기 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고개 숙이고 엎드려 다닥다닥 붙어있는 말 위로 남자아이들이 힘차게 올라탄다. 마지막 아이가 올라타자 말은 우르르 무너지고 말 탔던 아이들과 구경하던 아이들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아까부터 책상에 엎드려 썼다지웠다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쓰고 있는 석주.
식당사건 일로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우식은 석주에게 다가가 쓰고 있던 것을 빼앗아 읽는다.

쪽지 삽입
흰 종이에 연필자국이 여러 번 나 있다. 정성들인 글씨체로
<신령님, 우리 아빠 빨리 돌아오게 해 주세요> 라고 적혀있다.

우식 신령님, 우리 아빠 빨리 돌아오게 해 주세요오~? 석주 너 아직까지 이런 미신을 믿냐?
멍청하게~ 마을사람들이 그러는데 니네 아빠 길거리 떠돌다가 스님 됐다고 하더라.
신령님한테 찾아달라고 하지 말고 구룡사에 가보지 그래? 엄마는 도둑이고 아빠는 땡중
집안 참~ 조~오~타 (석주 앞에서 보란 듯이 땡중 땡중 거리며 교실을 돌아다닌다)

석주　이게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막나가네!! (우식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다)
우식　이 자식이~ 어제 우리 아빠가 안 말렸음 벌써 죽을 뻔한 게~

석주와 우식은 교실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뒹굴며 싸우다가 곧 우식이 석주를 올라탔다.

우식　좋았어. 이번엔 아주 끝장을 내 주겠어.
(E)　퍽!!
우식이 주먹을 휘두르자 석주의 코에서 피가 난다. 피를 본 우식은 순간 움찔했고, 그 틈을 타 석주는 우식을 밀치고 일어난다. 석주는 손으로 코피를 훔치다가 책상위에 있는 종이를 들고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다.

S#5. 마을 저수지

흐릿하고 비 올 것 같은 날씨 탓인지 저수지에는 오늘따라 낚시꾼도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서 싸운 것을 생각하며 분해서 부르르 몸을 떠는 석주

석주　우식이 이 개자식, 내가 죽을 때까지 저주 할 거야.

석주는 주변에 있는 돌을 주어 저수지에 던지면서 분풀이 한다. 처음에는 앉아서 몇 개 던지다가 나중에는 일어나 멀리 던져 버린다.

석주　(이게 모두 아빠 때문이야. 아빠만 계셨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었을 텐데....
　　쳇, 우리 없이 잘사나 어디 보자)

우식과 싸울 때도 무조건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우식을 혼냈던 이장의 모습과 소지를 주면서 빙그레 웃었던 이장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석주　(아빠.... 아빠가 그라워....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8살 때 아빠와 무심천에서 고기 잡고 놀았던 기억으로 회상.

S#6. 무심천 - 여름

하늘에는 잠자리가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수초가 많이 자란 무심천 길
한 손에는 족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동 태운 석주를 잡고 걸어오는 아빠.
무동 탄 석주는 채집망을 휘두르며 오다가 물살이 잔잔한 지점에 다다르자 어깨에서 내린다.
석주　아빠, 여기서 잡는 게 어때요? 저번에 영철이도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아빠　물도 깊지 않고 물살도 잔잔하니 여기가 좋겠구나
석주　히힛. 아빠 빨리 시작해요. 영철이 보다 더 많이 잡아야지~

아빠는 수초 사이에서 족대를 잡고 있고, 석주는 고기를 몬다.
족대를 들어 올리자 몇 마리 안되는 물고기에 실망하는 석주.
석주는 다시 고기를 몰아오고 아빠는 족대를 들어 올린다.
제법 큰 고기에 흥분한 석주는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가 퍼덕거리는 바람에 순간 중심을 잃고 물속에 빠진다.
아빠는 석주에게 다가오고, 석주는 아빠를 물에 빠뜨리며 물장난을 친다.

S#7. 마을 저수지

석주는 주머니에서 소지를 꺼내 펴본다.

석주　신령님, 해마다 같은 소원을 적어도 안 들어 주시기에 올 해는 다른 소원을 적을까 고민했어요. 이제껏 소원 안 들어 주신 건 원망 안 할 테니 제발 올해는 꼭 제 소원 들어 주세요. 네? 제발요. 흑 흑.... 흑흑흑흑....

(E) 소나기 소리 - 툭! 툭! 툭! 투드득 쏴아아아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디서 맡아 봤는데.... 어디서였을까....
어릴적 아빠와 함께 무심천에서 놀았을 때 그 때 맡아본 물비린내다.

석주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먹이며 서럽게 운다) 엉엉~ 흑흑.... 아빠~

빗줄기는 거세게 석주의 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빗물과 눈물이 만나 흐른다.

S#8. 마을 저수지 길 모퉁이

저수지 길 모퉁이에 숨어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석주엄마

길모퉁이에서 저수지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석주가 어깨를 들먹이며 울다가 몸을 웅크린 채 오돌오돌 떨고 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S#9. 당집 입구 - 저녁

어스름이 깔려 흐릿하게 보이는 당집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낡은 기와를 얹은 허름한 당집이 보인다. 당집 입구 양 옆으로 쭉 늘어선 장승들은 하나같이 무서운 표정들이다.
(E) 새가 퍼덕이는 소리 - 퍼드득!!

우식　아이고 깜짝이야~ 저 망할 놈의 새들!!
　　저 장승들하며 다 쓰러질 듯 한 당집이며 뭐 하나 맘에 드는 게 하나 없어.
　　아빠는 하필 당집 항아리에 소원을 담아두라고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S#10. 당집 앞 - 저녁

당집 문이 열리면서 석주가 나온다.
우식은 놀라서 소리 지를 뻔 했으나 석주 앞이라서 간신히 참는다.
석주와 우식은 마주 서서 잠시 동안 서로 노려보다가 석주가 우식이 어깨를 탁 치며 지나간다.

우식　아유~ 씨~ 저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석주 등 뒤에서 주먹을 들었다 놓는다)

당집 안으로 들어간 우식은 방금 전 석주의 행동을 떠올리며 소원항아리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코피 묻은 종이를 발견하고 펴본다.

우식　(석주 게 맞구나. 흥! 아빠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장승할배 목소리 삽입
소원성취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지를 태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산성을 돌고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식은 석주의 소지를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날리고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 뭐라고 적은

후 항아리 속에 넣는다. 우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당집을 빠져나간다.

S#11. 당집 앞마당 - 밤

(배경음악) 풍물소리가 크게 들리다 점점 작아지면서 계속 흐른다.
마을에 울려퍼지는 풍물소리가 산성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당나무에서 이 나무 저 나무로 오색 천을 달아 맨 줄이 쳐 있고, 마을발전을 기원하는 붕기를 든 마을사람 뒤로 □□무병장수□□,□□만사형통□□을 적은 붕기를 들이 보인다.
풍물패를 보기위해 몰려든 마을사람들은 신명이 나서 박수도 치고 춤도 추며 즐거워하고 있고, 당집 앞으로 몰려든 동네 강아지들도 리듬을 타듯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쁘다.

너 다섯 명 쯤 건너 뛴 거리에 석주모자와 우식모자가 있다. 석주와 우식은 풍물패 구경하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곁눈질하며 동태를 살피다 서로 눈이 마주친다.

석주는 주먹을 쥐어 우식이가 볼 수 있게 들어 올린다.

우　　식　(이거 봐라. 가만히 있는데 먼저 시비 걸고.... 걸리기만 해 봐. 가만 안두겠어)

우식은 금방이라도 싸울 듯 허공에다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있다.

우식엄마　아이고 이게 누구야~ 수암골 동식이네 아니야? 오랜만이네
동식엄마　어머~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형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는데....
　　근데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보네요.
우식엄마　그게.... 허리를 좀 다쳤어 (허리를 짚고 아픈 척 한다)
동식엄마　많이 다치신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우식엄마　어제 우리 식당서 장부정리를 하다가 바람에 영수증이 날려 떨어졌기에 그거 줍다가 물청소한 바닥에 미끄러졌지 뭐야~ 미끄러지면서 저녁장사 준비해 놓은 반찬도 엎어뜨리고 난리가 아니었어.
우　　식　(뭐야, 석주엄마가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었잖아?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난리를 쳤니....
　　엄마도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석주를 때렸으면 말렸어야지 그냥 보고만 있고.... 엄마 때문에 괜히 석주하고 싸웠잖아!)

우식엄마가 동식엄마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동식엄마는 풍물소리에 못들은 듯 우식엄마 입에 바짝 귀를 갖다 대고 있다.

석　주　(우식엄마가 어제 일을 얘기하면서 동식엄마한테 울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동식엄마가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데.... 동식엄마는 우리엄마 잘 모르잖아. 우식도 얄밉지만 우식이 엄마가 더 얄밉다니까)

우식엄마와 동식엄마는 계속 쑥덕거리고 있다.
석주는 신경쓰인 듯 엄마 손을 끌고 우식모자가 안 보이는 곳을 찾아 간다.
(배경음악) 작게 들리던 풍물소리가 커지다 다시 작아진다.

우식엄마　(석주네 모자가 서 있던 곳을 힐끗 쳐다보고 자리에 없음을 확인한 후) 있자나.... 동식엄마. 자네도 알지? 왜~ 석주네라고....

동식엄마　잘은 모르지만 형님네 식당일 도와주는 분 아니예요?

우식엄마　응 맞아. 이건 우리끼리 비밀 얘긴데.... 아무래도 석주네가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장사한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아.

동식엄마　에이~ 설마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형님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예요?

동식엄마가 자신을 동조 하기는 커녕 오히려 석주네를 두둔하는 것이 기분 나빴는지 갑자기 퉁명스러워진 우식엄마.

우식엄마　(기가막힌 듯) 착...착각하긴.... 석주엄마가 일한 뒤로 몇 천원 씩 없어지더니 엊그제는 글쎄 몇 만원씩이나 없어졌다고. 괜히 카운터 청소를 하지 않나, 어제는 내가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제야 자기가 계산한거라면서 앞치마에서 꺼내주더라니까.
계산하는 척 하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슬쩍 한 거야. 틀림없어.

동식엄마　형님도 참~ 석주엄마가 깜박한 거겠죠.

우식엄마　(신경질 내면서) 동생은 내가 꼭 석주네를 의심하는 것처럼 말하네. 예전에도 이런 일 여러 번 있었다니까 그러네!

옆에서 듣고 있던 우식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 깜짝 놀란다.

며칠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로 회상.

S#12. 식당 안(홀) - 일요일 오전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석주엄마를 대신해 우식이가 식당일을 돕고 있다. 아직 영업시작 전이라 우식엄마는 장사 준비에 바쁘고, 우식이는 바닥청소를 하면서 슬슬 엄마 눈치를 살피러 주방으로 들어온다 .

S#13. 식당 안 주방

우　　식　엄마, 장사하기 힘들지? 요즘 따라 엄마가 더 늙어버린 것 같아.

우식엄마　(욱하며) 뭐야~ 이 녀석아? 엄마는 장사하느라 늙는 게 아니고 니가 말 안 들어서 늙는다. 늙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매일 놀 궁리나 하고 있고....

우　　식　(능청떨며) 엄마 왜 그래~ 그래도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 일도 도와주잖아. (망설이다가) 저기... 엄마.... 있잖아.... 식당일 끝나고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

우식엄마　용돈 준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디다 쓰기에 맨 날 용돈 타령이야?

우　　식　저번 용돈은 모형비행기 사느라 다 썼지. 이번에 나온 건 저번 것 보다 훨씬 크고 멋있는 게 안사고는 못 배기겠단 말야.

우식엄마　어쩐지 니가 자진해서 날 돕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고무장갑을 벗어들고 우식을 때리려고 일어선다)

우　　식　(도망가며) 아휴~ 정말. 꼭 사야겠다니까!!

우식엄마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얼른 바닥청소나 마저 해. 손님 올 때 다 됐어.

S#14. 식당 안(홀)

우식은 입을 삐죽거리며 바닥을 닦다가 주방을 힐끗 보더니 카운터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다.

S#15. 당집 앞마당 - 밤

우　　식　(난 그냥 모형비행기 사려고 가져간 것 뿐 이었는데.... 나 때문에 석주엄마가 의심받고 있구나.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했다가 분명히 매 맞을 텐데.... 그렇다고 석주엄마가 계속 의심받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동식엄마　엊그제 우리 동식아빠가 산당산성에서 동창들을 만나 내려오는 길에 막걸리 한 잔 했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든데, 혹시 우리 동식아빠가 술값을 안낸 거 아니예요?

엊그제 식당 안으로 장면 전환.

S#16. 식당 안 (홀)

손님들로 붐벼있는 식당안. 여기저기 주문하는 소리가 들린다.
석주엄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우식엄마는 음식을 나르고 주문받기 바쁘다.
그 사이 문가에 자리 잡고 있던 동식아빠 무리는 자리를 뜨고, 동식아빠는 카운터로 나와 주머니를 뒤지더니 그냥 밖으로 나간다.
우식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동식아빠를 보지 못한 채 음식을 나르고 있다.

S#17. 당집 앞마당 - 밤

우식엄마　(아이고 큰 일 났네. 내가 생사람 잡아버렸네.... 석주엄마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능청떨며) 동식엄마, 어제 동식아빠 술 값 내고 갔어. 내가 어제 직접 계산 했는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바라. 우식아빠가 도와달라는 일이 있었는데 깜박했네. 동식엄마 나중에 바. 나 먼저 갈게.

우식엄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얼른 자리를 뜬다.
우식은 석주모자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꾸면서 걸어간다.

S#18. 당집 앞마당 - 자정

(배경음악) 풍물소리가 다시 커진다.
횃불을 켜 환해진 당집마당.
남사당패는 줄을 매고 그 위에서 대접돌리기를 하고 있고, 마을사람들은 애·어른 할 것 없이 연신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S#19. 당집 당나무 앞 - 자정

당나무 앞에서 산성제가 한창이다.
상에는 제물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그 옆으로는 소지를 담은 항아리가 보인다.
장승할배가 축문읽는 모습이 소리없이 처리된다.

장승할배가 술잔을 올리고 바로 서자, 마을사람들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같이 절을 한다.

우식은 혼자 절 안하고 석주를 찾는다.
절하고 있는 석주를 발견한 우식은 석주 곁으로 다가 선다.

우　　식　저... 저.... 저기말야. 석주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해.
석　　주　쳇!! (우식의 말을 들은 체도 안하고 우식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간다)
우　　식　(석주를 따라가며) 야! 홍석주! 미안하다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석　　주　(길 가다가 돌아보며) 비겁한 자식! 난 니 사과 받고 싶지 않아. 꺼져버려!!

장승할배　저기,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 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우리 마을에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지를 태웁시다.

이장이 소지를 담은 항아리를 장승할배 앞으로 가져온다.
장승할배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 소지를 꺼내려는 순간,
우식은 앞으로 달려가 항아리 속의 소지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자신의 소지를 찾기 시작한다.

장승할배　이 망할 것. 부정타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썩 꺼지지 못 할고~
이　　장　(우식을 말리며) 우식아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마을사람들이 달려들어 우식을 저지한다.

우　　식　(마을사람들을 뿌리치며) 그냥 내버려두세요. 소지 태우기 전에 제 꺼 부터 좀 찾고요

이장은 우식의 등짝을 후려치더니 팔을 잡아 무리 밖으로 끌어낸다.
장승할배는 소지를 태워버리고, 마을사람들은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소지를 보며 기도하고 있다.

석　　주　멍청한 자식! 꼴 조~오~다.
우　　식　으이씨~ 이게~ 내가 왜 그랬지 모르면서~
석　　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하하하....

우　식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다시는 사과하나 봐라. 이미 소지는 태워졌으니 어쩔 수 없고.... 설마 거기 적힌 대로 되겠어? 에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흥!!)

장승할배　자자, 이제 소원이 이뤄지길 기원하며 산성을 올라갑시다. 길이 어두우니 조심들 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장승할배가 앞장서 상당산성을 향해 오르자 마을사람들도 하나 둘 씩 손전등을 들고 뒤따라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행렬이 산성길을 따라 휘감아 놓은 전구장식처럼 보인다.

S#20. 상당산성 중턱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산성 길을 따라 마을사람들의 행렬이 보인다.
앞사람과 부딪힐까봐 조심조심 걸어가는 마을사람들.
(E) 방울소리

우식　(저거 우리 멍구 방울소리 같은데.... 집 지키라고 밥 많이 줬더니 여기까지 따라 왔나?)

우식은 방울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 석주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멍구를 발견한다.

석주　아이고~ 귀여워라. 니네 주인은 성질도 더러운데다 걸핏하면 주먹질인데 멍구 넌 어쩜 이렇게 주인과 딴판이니?

멍구는 석주와 떨어질 새라 꼬리를 흔들며 석주 옆에 바짝 붙어가고 있다.
(E) 방울소리

우식　멍구 너 이 녀석, 이리 오지 못해!!

주인보다 석주를 더 따르는 멍구를 보니 부에가 난 우식은 멍구를 향해 소리 지르고,
멍구는 멈춰서 우식을 찾다가 우식을 발견하고는 뛰어간다.

석　주　(저 배신자. 지네 주인은 잘 데리고 놀다가 수틀리면 발길질하는데 뭐가 좋다고....)
(E) 깨갱~깽~깽~

석　　주　으아악!!

석주는 우식을 향해 달려가는 멍구에 발이 걸려 산성길 옆으로 굴러 떨어진다.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놀란 우식과 마을사람들은 일제히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다.

S#20. 상당산성 중턱 옆길

신음소리를 내며 다리를 감싸고 있는 석주.
마을사람 몇몇이 달려가 석주를 살펴본다.

석　주　으아악. 아~ 아파요.
마을사람　이거 큰일 났구나. 석주야 걸을 수 있겠니?

마을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석주는 몇 발짝 걸어보고는,

석　주　(절뚝거리며) 걸을 때 마다 발목이 시큰거리긴 하지만 부축 받으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사람　그나마 다행이다. 이쯤해서 마을로 내려가자.
석　주　안돼요. 꼭 산성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해요. 그래야 소원이 이뤄진댔어요.
마을사람　어허~ 이 녀석. 글쎄 안 된다니까 그러네. 고집부리지 말고 어서 내려가자.
석　주　(울먹이며) 안돼요. 이번이 마지막 소원빌기예요. 이번엔 정말 간절히 소원을 빌었단 말이예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정상까지 부축해주시면 안될까요?
마을사람　그래도 아저씨 생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 여기 좀 앉아서 쉬고 있으렴. 내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부축해서 데려 가마
석　주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 부탁드려요. 네? 한 번 만요. 제발....

S#21. 상당산성 중턱 벤치

산성으로 올라가는 마을사람들의 행렬을 끝으로 길가 벤치에 앉아 낙심하고 있는 석주의 모습이 보인다. 달빛도 나무들에 가려 희미하게 비추고 석주 마음도 씁쓸하다.

석　주　(이번에도 내 소원이 이뤄지기는 다 틀렸어. 다 틀렸다고!!)

석주가 성한 다리로 걷어 찬 돌멩이가 또르르 굴러가다 우식의 발끝에서 멈춰 선다.

우　식　홍석주, 너 답지 않게 왜 그러고 앉아있어? 산성에 올라가자. 일어나.
석　주　또 너냐? 내 일에 상관 마.
우　식　너 마지막 소원빌기라며? 간절히 소원빌었다며 겨우 이 정도냐?
석주　내 일에 상관 말랬지. 꺼져버려!
우식　그러지 말고 부축해 줄 테니 어서 올라가자. 나한테 화 안 풀린 거 아는데 일단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싸우자고. 그러면 되잖아.
석주　싫어. 싫다니까!!
우식　석주야 나랑 같이 올라가자. 응? 나 혼자 올라가기엔 무서워서 그렇단 말이야. 내가 부축해 줄게. 얼른 가자~ 알았지?
석주　(못이기는 척) 정말 부축해 줄 수 있어? 내가 니 도움 받는다고 해서 널 용서한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우식　알았어. 알았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자.

별과 달이 산성길을 비춘다.
서로 의지하며 걷는 두 아이들 뒤로 신령님이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다.

S#22. 상당산성 정상

우식과 석주는 보름달 빛에 잠든 듯 고요한 청주 시내를 내려다보며 나란히 앉아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어른거리자 우식은 석주 곁으로 바싹 다가와 앉고,
석주는 피식 웃으면서 모른 척 한다.

우식　캬~ 바람 시원하다. 내가 너 데리고 오느라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쪼매난 게 은　　근히 무겁다니까~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 판 붙어야지? 안 그래?
석주　응. 붙긴 붙어야지. 아직도 쌓인 게 많으니까.
우식　(진지해지면서) 석주야, 아직도 화 많이 났니? 그땐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내가 정말 미안해.
석주　(킥킥대며) 내가 화난 척을 좀 했더니 쫄았구만.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아까 산중턱에서 나 혼자 앉아있을 때 너 보니까 반갑더라.
우식　너 이 자식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오는 동안 한 마디도 안 할 수 있냐?

석주　실은 아까 니가 부축해 준다고 했을 때 화 다 풀렸어. 근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화풀렸다고 금방 헤헤~ 거리며 웃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계속 연기했던거야.

우식　하여간~ 못 말린 다니까~

우식은 앉은 자리에서 하늘을 보며 누어버린다.
별똥별이 불빛을 내며 청주시내로 떨어지고, 두 아이들은 별똥별을 바라본다.

석주　근데 우식이 너 왜 나를 도와 준거야? 아까만 해도 다시 안 볼 사이처럼 그러더니....

우식　아빠 만나는 게 소원이라며? 그거 들어 주려고 그런 거지.

석주　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

우식　사실 그게.... 말이야.... 당집 앞에서 만났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항아리에 든 니 소지를 찾아 찢어버렸어. 코피가 묻어서 니꺼라고 생각했지. 소지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산성밟기는 꼭 해야 한다고 떼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축을 해서라도 꼭 정상까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한테 그렇게 간절한 소원인지도 모르고....

(석주의 눈치를 살핀다)

석주　.... 괜찮아.... 그깟 종이 태워 올린다고 소원이 이뤄지겠어~?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똑같은 소원을 빌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는데 뭐~ 그러고 보면 신령님은 거짓말쟁이야. 산성제 때 근사하게 제사상 받은 것도 모자라 소원 들어준답시고 힘들게 산성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말이야.

우식은 누어있다가 벌떡 일어난다.

우식　근데 석주야~ 신령님이 있긴 있는 가 바. 가끔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더라고.
난 니가 산성 올라가지 못하게 다리나 부러져버리라고 썼는데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어도 어쨌든 다 쳤잖아.

석주는 바닥에 낙서를 하다가 멈추더니,

석주　(장난스레) 뭐야! 우식이 너 나한테 잘못한 게 또 있었어? 죄가 얼마나 많은 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백을 하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친구 다리나 다치게 하고 말이야~

우식　나도 내 죄가 큰 줄 알아. 그래서 아까 소지태워 올릴 때 내꺼 태우지 못하게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결국 실패했지만 장승할배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맞으면서까지 찾아내려 했었다고....

석주　하하하하.... 근데 그때 되게 고소하더라. 장승할배한테 맞았으면 뼈도 못 추리는 건데....

석주는 아픈 다리를 살살 움직여 본다.
우식은 석주의 아픈 다리에 장난을 치려고 손을 뻗다가 그만둔다.

우식　아까 니가 다리 다쳤을 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진짜 다칠 줄 몰랐거든. 신령님은 소원을 골라 들어주시지 나쁜 소원도 들어주시고.... 이상한 신령님이라니까

석주　아주 간절히 기도했으면 내 다리가□□똑□□하고 부러졌을 텐데 아까워서 어쩌나~ 킥킥

우식　놀리지마. 나도 반성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이번에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 준 거 보니까 석주 니 소원도 들어 줄 지도 몰라. 넌 간절하게 빌었잖아.

석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 만 큼 간절하게 바란 적도 없었는데.... 정말 소원이 이뤄질까?

우식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이뤄준다잖아. 신령님도 부처님도 다 니 마음 알거야. 걱정하지마.

석주　고맙다 우식아. 내 맘 아는 사람 너 밖에 없어. 이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우식　응. 나도 잘 할게. 고마워 석주야.

석주와 우식은 손잡고 빙긋 웃는다.
하늘의 달빛이 산성에서 마을로 점점 퍼지면서 장면이 마무리된다.